

믿음의 선한 싸움 - 복음으로 여는 사사기 -

사사기 21:25, 디모데전서 6:11-16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받아서 에덴의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양하고 불순종하여, 그리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강단메시지를 듣고 언약을 붙잡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다. 성도들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보며 거기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분은 교회를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국가대표선수든 다른 사람을 보면 초보인지, 아마추어인지 다 안다. 어떤 분이 아주 사소한 것에 빠져서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인생을 바치고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천 단계, 만 단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도 먹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는 단계까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끊임없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광야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즐겁게, 행복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다. 소견이라는 ‘아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눈’을 뜻한다. 사람의 눈은 자신의 지식, 사상, 의견, 성격, 태도, 성향, 견해 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말씀따라, 복음따라 가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버리고 강단 말씀에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때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꺾이고 지교회와 70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와 아비멜렉이 등장한다. 이중 6명의 사사는 기록한 분량이 많아 대사사라고 하고, 기록이 많지 않은 6명은 소사사라고 한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하였지만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지도자였다. 그래

서 그는 사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은 웃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다. 사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1. 첫 번째로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도 가정, 현장에서 사사이다. 사사들에 대한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등 다양한 종류의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기도 한다. 오늘은 12명의 사사들 중 대표적인 사사들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 해주시실 유일하신 참된 사사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아우 웃니엘이었다. 사사기 3장 9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문제 왔을 때 부르짖기를 바란다. 사소한 문제에도 부르짖으라. 또한 형제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는 드보라이다. 4장 4절에 보면 랍비뚱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는 바락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용원을 하여 주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사사였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한 여제자이며 전도자였다. 그러나 드보라가 사망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3) 세 번째로 6장부터 8장은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던 40년간은 이스라엘 땅이 태평하였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이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나 기드온은 항상 무엇인가 확인을 받아야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가장 악한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첩의 자녀였다.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다 죽였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재앙과 문제가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기드온은 300 용사의 이야기로 유명하다.

(4) 네 번째의 대표적인 사사는 삼손이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힘이 센 것으로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양 눈을 뽑히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 마지막 순간 블레셋 족속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망하였다. 사사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꺾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힘은 근력이 아니라 참된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삼손은 힘이 있고 머리가 길었지만 힘만 믿으며 꾀를 썼다. 우리가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 정욕에 당하게 된다.

2. 두 번째로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언해 보도록 하겠다. 사사기의 내용들은 대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이 숨겨져 있다.

(1)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장 먼저 가나안에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지파가 유다지파였다. 이는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사사기 1 장 1 절에서 2 절을 보겠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하는 싸움이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방 족속을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사사기 3 장 1 절에서 4 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일부터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시험거리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란다. 요셉도 아브라함도 그러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들에는 결코 마이너스가 없다.

(3)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탄의 길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고 복음이다.

(4) 다음은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다. 당시는 약 3,500 년 전이었는데, 여자의 신분인 드보라가 선지자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성경이 시대를 얼마나 앞선 복음적인 책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렘넌트 중에서도 드보라와 같은 리더가 나와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이다.

(5) 다음은 사사들의 중요성이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승리하였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사와 다락방, 지교회 사역자들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흑암은 꺾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70 지교회와 70 현장을 열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겠다. 어두운 현장에서 작은 촛불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 전체를 살리고 리드하는 길이 된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리겠다.

(6) 다음으로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겠다. 단지 기드온의 300 용사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영적 메시지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인원수, 군사력, 힘, 배경, 환경, 실력, 지식, 권력, 자원, 돈 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결론으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참된 사사이시고, 참 왕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일 우리들이 24 시간 나의 여리고와 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향한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된다.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도전을 항상 해야 한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위해 5 분만 진실하게 집중해 기도한다면 답과 응답과 해답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 이 맛을 여러분이 봐야 한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내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방족속과 우상들과 나의 소견에 옳은 것들이 무엇인지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이것들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록만 해도 주님께서서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서 참 왕 되시고 참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들이 다 언약하고 부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우 남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